

2022년도 2차 생통포럼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미디어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집담회

일시 : 2022. 10. 26 [수] 오후 3시

장소 : 5·18민주화운동 기록관(7층)

□ 주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관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협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 프로그램 [사회 :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구분	토론자
발 표	- 홍성철(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범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패 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유빈(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 - 신응주(조선대 교수) - 엄수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박홍근(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 김병택(광주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이기봉(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추혜성(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종합토론	

■ 목 차

1. 발 표	홍성철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범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01
2. 패 널(1)	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이사	-----	09
3. 패 널(2)	신응주	조선대 교수	-----	10
4. 패 널(3)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12
5. 패 널(4)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	14
6. 패 널(5)	김병택	광주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17
7. 패 널(6)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	18
8. 패 널(7)	추혜성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	
9. 종합토론				

발표문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미디어월 어떻게 할 것인가?

홍 성 칠(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범시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경과 및 향후 계획

<복원사업 경과>

- 16. 9. 7. : 옛전남도청 복원요구 별관 1층 점거 농성
 - 유네스코 아·태 지역위원회 사무국 개소식 계기.
- 16. 9. 30. :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 출범
 - 참여단체 : 49개 기관 및 단체 (자치단체(3), 오월단체(6), 시민사회단체(11), 노동(2), 재야(2), 학계(3), 종교(4), 법조(1), 예술(1), 학생(1), 정당(6), 개별단체(5), 전남(4))
- 17. 4. 7. :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대책위 안 확정

구 분		주 요 내 용
A	6개동 내외부 공간 복원	도청본관, 별관, 회의실(민원실), 경찰청본관, 민원실, 상무관
B	도청 본관-별관 연결통로 복원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연결(오월의 문)
C	도청 본관-회의실 연결통로 복원	5·18당시의 모습대로 2층 연결통로 복원
D	상무관 진입로 평지화	상무관, 민주광장 평지화(민주광장 편입)
E	방문자센터 철거	경찰청과 도청본관 사이에 설치된 방문자센터 이전
F	경찰청 후면 철골구조물 철거	미디어월 철거
-	전시콘텐츠 재구축	건물 원형 복원 후 1980년 5월 상황 재현(5·18스토리텔링)

- 17. 5. 18. : 문재인대통령,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옛전남도청 복원 협의·협력 발표
- 17. 8. 28. : 도종환 문체부장관 전남도청 현장 방문 - 6개동 건물 전체 복원 약속
- 17. 10. 12. : 옛전남도청복원 협의회 구성

구 분	명 칭	문체부	광주시	대책위
상위급 협의회	옛전남도청 복원협의회	전당장	행정부시장	상임공동위원장
실무급 협의회	복원 공동실무TF	전당과장	담당과장	집행위원장

- 17. 10. 20. : 옛전남도청 복원 총괄 로드맵 대시민 보고회 개최
 - 2021년까지 복원을 완료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

- 현황 및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복원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복원기본계획> 용역을 우선 추진
 - 상무관 접근성 개선사업은 전남도청 복원과 별도로 추진(2019년 상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
 - <복원기본계획>이 끝난 이후,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의 공간 및 외형에 관한 <복원 설계>와 5·18 활동상황을 표현할 <전시·재현 등 설계>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
- 18. 6. 25. ~ 30. : 조속한 복원 촉구 1차 청와대 앞 삭발, 단식투쟁(농성장 지킴이)
 - 18. 7. 3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심의·의결(아특별)
 - 옛 전남도청 복원, 철저한 고증을 통해 원형 복원
 - 18. 9. 28. 이낙연국무총리 / 18. 9. 17. 도종환장관 현장방문
 - 책임과 권한을 갖는 추진체계 필요 - 광주시를 통해 의견을 주면 조속히 추진
 - 18. 10. 30. ~ 11. 2. : 조속한 복원 촉구 2차 청와대 항의 투쟁
 - 18. 11. 12. : 옛 전남도청복원 전담팀 발족(문체부, 광주광역시 등 7명)
 - 19. 3. 27. :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18. 9. ~ 19. 2. 연구용역, 대국민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개최
 - 19. 4. 정부안 확정
 - 22년 12월 공사완료 목표로 진행

구 분		주 요 내 용
A	6개동 내외부 공간 복원	도청 본관, 별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B	도청 본관-별관 연결통로 복원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연결
C	도청 본관-회의실 연결통로 복원	5·18당시의 모습대로 2층 연결통로 복원
D	경찰청 후면 철골구조물 철거	미디어월 철거
E	본관 공간(바닥) 복원	본관과 경찰국 사이, 본관 주변, 수위시 및 담장 경계 등
-	전시콘텐츠 재구축	건물 원형 복원 후 1980년 5월 상황 재현(5·18스토리텔링)

- 19. 9. 10 : 옛전남도청 복원추진단 출범. 3년 한시조직
 - 자료수집·조사, 내·외부 복원 등을 좀 더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함.
 - 19. 8. 20 : 국무회의 통과(대통령령), 19. 8. 27. : 공표
 - 문체부 차관 직속. 1단(고위급), 2과 1팀(복원협력과(8명), 복원시설과(7명), 전시콘텐츠팀(9명))
 - 24명 : 문체부 8, 행안부 1, 국방부 1, 국조실 1, 광주시 7, 아시아문화원 2, 전문임기제 3, 계약직 1
- 19. 11. 1. : 옛 전남도청복원 실시설계 착수

- 자료조사(사진,영상,기록), 구술채록(항쟁 / 건물), 탄흔조사, 서사 등
- 노먼쇼프 자료 전시, 탄흔조사 및 대국민설명회 개최
- 20. 12. : 옛전남도청복원 협의회 조정(문체부장관 규칙)

구 분	명 칭	문체부	광주시	대책위
복원 협의회	옛전남도청 복원협의회	추진단장	인권국장	상임공동위원장
실무급 협의회	복원실무협의회	과장, 팀장, 전담담당자	과장, 팀장	집행위원장, 상황실장, 오월단체

- 20. 5. 18. : 문재인대통령(제40주년 5 18기념식) 도청의 충실한 복원 약속
- 20. 9 .23. :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KDI)실시
- 20. 11. 18. : 옛 전남도청 복원 공간 전시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기본 구상>

별관	본관	회의실	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방문자센터 교육/회의공간	원형복원 실감콘텐츠	원형복원 실감콘텐츠 5·18관련 행사	수장고 5·18전사 주제별 서사	특별(상설) 전시관	추모공간

- 22. 7. 15. : 타당성 재조사 결과(한국개발연구원) 총사업비 증액 반영
 - 22. 6. 30.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인정
 - 경제성 검토 결과와 정책효과 등 종합평가 결과 사업비 증액(217억원) 의결
 - 총사업비 조정 : 255억원 → 타당성재조사 반영된 427억 중 466억월 반영

<향후 계획>

① **건물 복원** : 23 ~ 24년 : 복원공사 착공 및 건물 내.외부 시공

- 22. 11. :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 마무리.
- 22. 12. : 공사 발주
- 23. 3 : 공사 착공

② **옛 전남도청 미검증 탄흔 2차 정밀조사 추진** : 22. 10. ~ 23. 10.

- 3단계 2차 정밀조사 : 22. 10. ~ 23. 10.
 - 1차 정밀조사까지 265개 흔적 조사분석 마무리, 탄두 12발 적출,
 - 남은 흔적 270개 미검증 탄흔 정밀조사 및 국과수와 연계 검증 및 보존처리
 - ▷ 옛 전남도청 별관·경찰국 민원실·상무관 및 의심지역 감마선 촬영
 - ▷ 촬영 결과에 따른 탄흔 분석 및 탄흔 데이터 기록 실시
 - ▷ 수목 4그루 정밀조사
 - ▷ 확정된 탄흔 및 주변에 대한 보존처리

- ③ **내부 공간별 전시콘텐츠 구현** : 6개동에 대한 공간별 전시콘텐츠 구현(안) 업데이트
 - 22 ~ 23년 : 공간별 세부 구현(안) 마련
 - 23 ~ 24년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사회적 합의, 발주 및 실시설계, 공간별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
 - 25년 : 전시콘텐츠 설치 완료 및 개관

□ 미디어월 어떻게 할 것인가?

① 미디어월 개요

- 시설규모 / 설치연도 : 면적1,241㎡(4층, 철골조) / 2017년(4월 5일 운영개시)
 - 설치비용 : 43억원(미디어월 26억원, 철골구조물 17억원)
 - 시설현황 : 디스플레이 75.2m×16m(大 21.6×9.2, 小 10.6×6.6), 스피커 18개, 우퍼 4개
 - 운영현황 : 08:00~22:00(일 14시간 운영) *일평균 25구좌 운영, 1구좌 = 20초/100회
- 기능
- 광주(미디어아트창의도시) 및 전당(미디어아트 창제작기관)에 갖는 상징성
 - 옛 전남도청과 전당의 이정표로서의 역할 수행 / 숨겨진 전당을 알리는 상징물 (일 평균 2.5시간(일 전체 14시간 중 약 18%)을 5.18관련 콘텐츠 상영에 활용 중)

② 미디어월 철거 경과

- 철거 이유
 - 최후 항쟁지로서 옛 전남도청(경찰국)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함.
 - 경찰국 후면의 항쟁 흔적과 수많은 이야기가 사장됨.
 - 도청과 문화전당을 분리하는 벽으로 작용. (공간, 내용)
- 복원대책위(17. 4월) -> 복원협의회(18. 9월) -> 정부안으로 확정(19. 4월)해서 추진
- 19. 11월부터 시작된 복원공사 실시설계 단계에서 미디어월 이전설치 방안 검토
 - 현재의 구조물은 철거하되 새로운 장소로 이전 설치 필요
- 20. 9월 : 타당성 재조사(KDI)에 '이전설치 및 비용'포함.
- 22. 7월 : 타당성 재조사 결과 - 이전설치 인정, 비용 49억 확정

③ 현재 상황 및 방안

- 22. 8. 7. : 대책위 위원장단과 문화전당(전당장, 과장, 담당팀장) 간담회
 - 문화전당 : 현재 상태에서 높이를 낮추는 방안과, 크기를 축소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검토 중.

- 대책위 : 현 상태에서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은 철거의 취지를 충족할 수 없는 방안.
- 상호 방안을 찾는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를 진행해 가기로 함.

○ 방안 : (대책위, 복원협의회 실무회의 논의 정황)

- 미디어월 철거는 복원사업 기본안 확인
- 현재의 미디어월은 형태, 기능, 기술,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국립기관의 위상을 상징하는데 부족함이 있고,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트렌드에도 뒤쳐져 있음.

☞ **현재의 모양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새롭고 발전된 형태, 기능, 기술을 적용한 미디어 아트 상징물 창조(설치)가 필요.**

대
동
부
문
서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미디어월 어떻게 할 것인가?

김 유 빈((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이사)

○ “5·18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건축물이 전남도청을 가릴 우려가 있다.”

- 옛 전남도청 복원, 3년만에 본궤도 올랐다, 광주일보, (22.10.18)
- 지역에서 오월 항쟁의 당사자·비당사자를 나누거나 항쟁의 참여 정도, 오월에 무엇을 했는지, 오월을 얼마나 아는지 묻는 지역의 분위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 1980년 5월에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 ‘원형복원’에 대한 고민

- “충실한 복원” / “건물 원형 복원 후 1980년 5월 상황 재현” (5·18 스토리텔링)
- 80년 5월 당시로의 ‘충실한 복원’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공감대 형성 미비

○ 미디어월 철거 사유, 경찰국 후면의 항쟁 흔적과 수많은 이야기가 사장됨

- 공간이 드러나면 숨겨진 이야기가 흐를 것인가?
- 상무대의 복원 / 전일빌딩의 복원
- 캄보디아 킬링필드 투어슬랭 박물관의 모습
- 비엔날레 영상 전시 작품

○ 전시콘텐츠 구현, 미디어월 활용 방안

- 현재 일 전체 14시간 중 약 18%를 5·18 콘텐츠 상영에 활용하고 있으니, 이를 대폭 늘려 경찰국, 오월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방안 고민
- 영상공모전 등 오월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시도
- 미디어월을 시청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장소 재정비

○ 5·18민주화운동이 말하고자 하는바, 오월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해제 “우리는 과거사에서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 결국, 끊임없이 오월의 이야기를, 광주의 이야기를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의 문제
- 오월을 배워야 하는 세대가 많아짐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고민해야 함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미디어월 어떻게 할 것인가?

신 응 주(조선대 건축학과 교수 /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2019년 추진했던 옛 전남도청 복원기본계획은 6개월 간의 짧은 과업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 국무총리, 문화체육부장관을 비롯한 십 수 차례의 보고회와 매주 성과보고서 제출 등 과중한 업무를 떠안았고 수많은 관심을 받아 추진되었던 과업으로 기억한다. 제안했던 과업의 주요 내용은 2019년 4월의 정부 확정안과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는 6개동 내외부 공간 복원, 주요건물의 연결통로 복원, 방문자센터 철거 후 주변 복원, 도경찰국 후면 철골구조물(미디어월) 철거 등이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내년 초 공사 착공이 진행된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은 도청 별관의 복원과 미디어월의 존치여부였다. 도청 별관은 건물의 절반이 철거되어 아시아문화전당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그 아래에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터널이 관통하고 있는 악조건에서 1980년의 모습으로 복원을 위해서는 건축·토목분야의 구조 검토가 필요했다.

미디어월은 경찰국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거대 철골구조물로 2017년에 운영되기 시작한 디스플레이 설비이다. 2019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포럼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설계한 우규승 건축가는 설계의 주안점에 대해 강의하면서 '5.18을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월은 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을 연계'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한다고 역설하였다. 미디어월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이정표 역할을 하며, 지하에 숨겨진 전당을 알리는 상징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1980년 5월에 전남도청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과 이를 우리가 기억하여 후손에게 전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 일명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다. 5.18과 관련된 역사적 기념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장치이다. 힘(제도)이 미약하다는 의미이다. 그나마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미래에는 강력한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지정문화재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문화재가 돋보일 수 있도록 정비하는 일이다. 전남도청 내에 미래의 잠정 문화재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광주 전라남도청 구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재, '전남도청회의실'은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이다. 문화재는 점과 면으로 비유되는데, 이런 표현법으론 본관과 회의실은 일명 '점'문화재이다.

'면'문화재는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사적'이 있고, 시도지정문화재는 '기념물'이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면'문화재로 추진을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미디어월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17년에 설치된 미디어월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존치 여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앞서 장황하게 설명했다시피 지정문화재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는 일이다. 잠정 문화재가 돋보일 수 있도록 미디어월의 철거에 대한 명분을 위의 내용으로 제안한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의 역할이다. 미디어월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의 명칭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융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건축물 외피에서 재현되기도 하는데 도시주의(Urbanism)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는 장소의 제약이 없이 사용될 만큼 기술이 발전되었다. 2007년에 조성된 미디어월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소에 미디어월을 설치할 수 있다. 장소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역사 문화도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엄 수 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과 미디어월 존치에 관한 문제에 그다지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첫 삽을 뜨기 전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는가? 복원 앞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희망적이 아니라 왜 늘 절망적인가? 옛 전남도청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가 아니라, 조금 부담을 덜고자 광주광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에 관해서 원형복원이라는 말에 조금은 거부감이 있다. 원형복원이란 말에서 역사성과 현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모르지는 않는다.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 건물 안과 밖, 복원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당시 10일간의 항쟁 상황은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가 우려가 된다. 재현이 역사성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스토리텔링으로 차차 해결해 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미래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당시 건물로 재건되고, 상황은 재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형복원이라는 단어는 모순이 있다. 과거와 현재 상황은 충분히 재건할 수 있겠지만 미래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광주광역시는 예방과 의향을 예술이 살아있는 문화도시와 민주 성지인 역사 도시를 표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옛 전남도청은 장소에 얽힌 시간과 기억을 되살려 미래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광주 민주화라는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월 존치에 관해서

미디어월 존치는 현 위치에서 반대다. 전당 쪽에서 운영상 안정성과 출입구 기능을 들었다. “수년째 주 출입구 기능을 해온 미디어월을 옮기게 되면 운영상 안정성이 떨어진다. 거대한 크기의 미디어월을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다”라고 곤혹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5·18을 비롯한 여러 콘텐츠를 알리는 창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도 말했다. 출입구 역할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눈앞이나 코앞에 있어야만 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형복원추진단 입장 미디어월은 현재 옛 전남도청 경찰국 뒷면에 설치돼 있어 “5·18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건축물이 전남도청을 가릴 우려가 있다”라고 하여 철거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원이니 그것도 원형복원이란 단어를 사용했으니 철거는 마땅하다. 하지만 미디어월이 5·18민주화운동 미래를 표방할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5·18을 기념하는 콘텐츠를 5월에 보여준다고 해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미디어월이 지하에 자리 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지상에 있는 5·18 최후 항전 지인 옛 전남도청 사이에 가교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소통의 창과 상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가이다. 미디어월이 그 자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18정신의 문화적 승화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미디어월 존치에 관해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

국제헌장(베네치아헌장 1964)에 복원과 보수에 관해 조문을 인용하면서 생각을 마친다. '증축(첨가)은 이것이 건물의 중요한(흥미로운) 부분, 전통적 환경, 구성의 균형과 주변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을 때만 허용한다.'

미디어월이 현 자리에서 5·18 정신을 소통하게 하는 창인가를 깊이 생각해볼 때이다.

도시의 역사는 현재 삶의 퇴적층을 만든다

박 홍 근(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 진행사항 요약

1. 왜, 미디어월을 만들었는가?

- 광주(미디어아트창의도시) 및 전당(미디어아트 창제작기관)에 갖는 상징성
- 옛 전남도청과 전당의 이정표로서의 역할 수행 / 숨겨진 전당을 알리는 상징물

2. 왜, 철거하려 하는가?

- 최후 항쟁지로서 옛 전남도청(경찰국)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함.
- 경찰국 후면의 항쟁 흔적과 수많은 이야기가 사장됨.
- 도청과 문화전당을 분리하는 벽으로 작용. (공간, 내용)

3. 현재 상황은...

- 문화전당 : 현재 상태에서 높이를 낮추는 방안과, 크기를 축소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검토 중.
- 대책위 : 현 상태에서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은 철거의 취지를 충족할 수 없는 방안.
*상호 방안을 찾는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를 진행해 가리로 함.

4.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 미디어월 철거는 복원사업 기본안 확인
- 현재의 미디어월은 형태, 기능, 기술,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국립기관의 위상을 상징하는데 부족함이 있고,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트렌드에도 뒤쳐져 있음.
- ☞ 현재의 모양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새롭고 발전된 형태, 기능, 기술을 적용한 미디어아트 상징물 창조(설치)가 필요.

□ 토론자 의견

미디어월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 acc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시설이었다. 세월이 흘러 상황은 변했다. 옛 전남도청 복원에 따른 미디어월의 존재 이유를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런데 꼭 철거만이 대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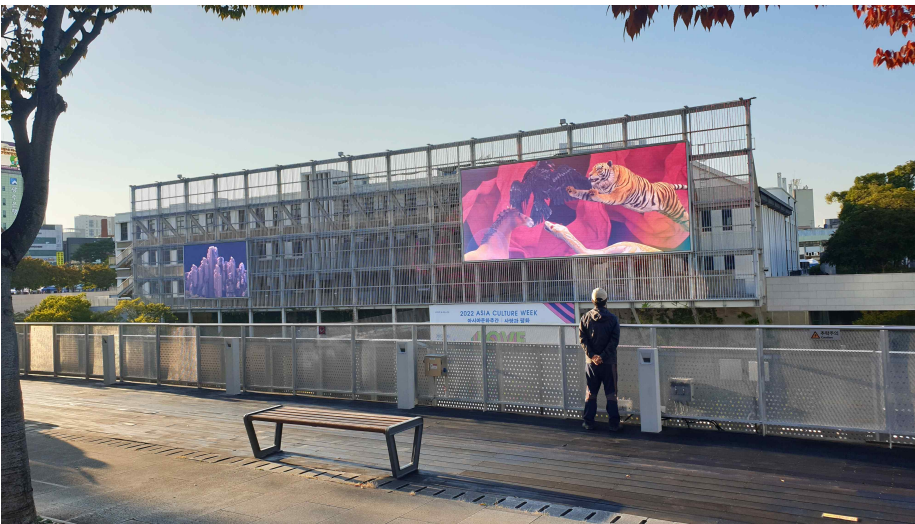
변하지 않은 것은 없다. 공간도 바뀐다. 생각도 바뀐다. 관점을 달리하면 미디어월이 철거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 acc와 옛 전남도청건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옛 경찰국 건물 뒷면이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2. 이 정도 시설로 옛 전남도청 일원의 이야기와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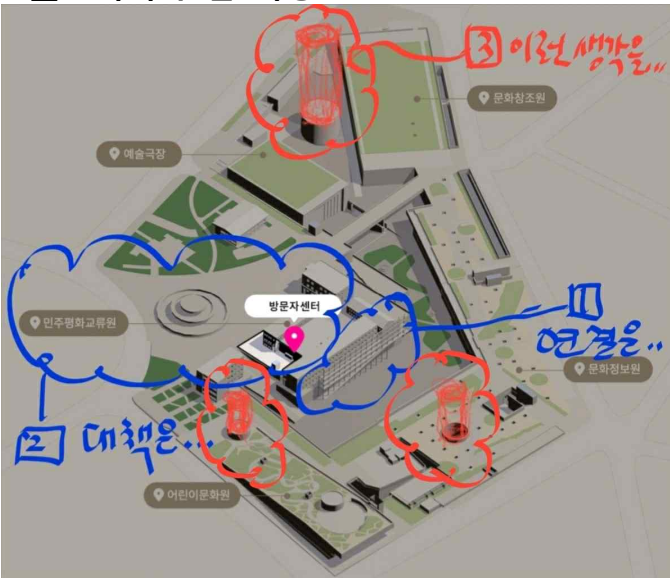
3. 두 건물 사이의 미디어월은 옛것과 새것 절묘한 조화, 절벽 위 성처럼 보이는 것을 완화해 주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

□ 미디어월 현황



- 정보전달 기능은 현 위치에 있는 것이 최상이다.
- 데크나 숲길에서 볼수 있는 높이다.
- 현 위치에서 높이를 낮추거나 규모를 축소하면 제 기능을 할수 없어 보인다.
- 현 위치도 차도나 인도에서 보이질 않는다.

□고려해야 할 사항



-만약 미디어월을 철거하더라도 옛 전남도청에서 문화광장으로의 연결기능을 강화되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
미디어월을 만들 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과 그간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대안은 무엇인가?

-민주평화교류원과 방문자센터 기능은 어떻게 대체 할것인가?

-acc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시와 제안



- 예시 작품은 이토도요의 <바람의 탑>이다. 환풍구를 이용한 것이다.
- 다른 곳에 설치한다면 acc부지 안에서, 차도나 인도에서 잘 보이는 곳을 찾아 설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3개소의 ○형 구조물을 검토할 수 있겠다.
- acc 내외부 모든 곳에서 잘 보이고, 작품성 있고, 효과적인 위치와 디자인을 간직한 작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 창의도시’ 와 아트월

김 병 택(광주민족미술인협회 대표)

1. 2014년 12월 광주광역시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된 후 ACC에 설치된 ‘미디어 월’은 3년간43억원(미디어월26억원,철골구조물17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에 완공하였다.

가로 75.2m, 세로 16m 규모의 철골 구조물과 풀HD급 미디어 메쉬에 21×9m, 10×6 m 크기의 와이드 스크린 2개를 각각 결합한 건축물 형식으로 최근까지 송출된 작품만 영상, 이미지 문자들의 콘텐츠가 24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까지 ACC의 아트월의 기능, 접근성과 시인성 랜드마크의 역할을 자부하고 있지만 1980년 5·18 당시 존재했던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재기된 현 상황의 철거 논란은 단순히 이정표로서의 역할로는 설득할 수 없는 논란의 상황으로 보인다.

2. 철거과정과 철거이유의 타당성에 공감하는바 앞으로 진행에 있어 2014년 사전 충분한 논의 없이 아트월의 장소 선정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경과 후의 로드맵에 따라 복원과 보존의 논란이 현재 양분하는 바 장소성과 상징성에 있어서 미디어 월의 재설치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

3. 또한 광주광역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관련한 ‘미디어 창의도시’의 지원정책의 형평성과 엄정하고 균형있는 대응을 광주광역시와 ACC측에 요청한다. ‘미디어 창의도시’의 는 철거 논란의 중심인 ‘미디어 월’의 이미지가 전체를 감당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 현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야외공간 미디어 파사드,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하늘마당, 열린마당, 상상마당, 어린이문화원 앞광장,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광주미디어 아트 공모전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 아시아 문화전당 경관 조성사업 미디어 파사드, 광주미디어센터(GMAP)의 미디어 콘텐츠가 광주예술의 전반에 차지하는 비중과 현대예술의 트렌드로서의 객관적 진단이 요구된다.

ACC와 미디어월

이 기 봉(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청 뒤의 거대한 철제 구조물은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세웠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설치되었다. 2015년부터 옛 전남도청 보존공간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월단체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철제 구조물은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어느 순간 들어섰다. 그리고 거대한 철제구조물에 전광판이 달리더니 아예 옛 전남도청은 보이지 않았다.

오월단체는 별관 강구조물, 도청 앞 CCTV, 조명탑, 환풍기, 상무관, 본관 수위실과 상황실 등에 대한 현장 확인과 논의를 아시아문화전당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은 한 번도 경찰청 뒤편의 철제구조물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미디어월이 80년 당시의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이었을까?

철제 구조물은 나중에 미디어월이라고 불렸고, ACC 창제작 콘텐츠 소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오월단체에서 보는 미디어월은 옛 전남도청을 가리는 거대한 벽처럼 다가왔다. 도청과 보존공간은 심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복원 논의가 한창인데 정작 도청은 여전히 미디어 월에 가려져있다.

ACC 미디어월은 그동안 아시아문화전당이 보여 온 불통과 단절의 대표적인 행정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설치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의 한 번 없었다. ACC에서 말하는 미디어월의 기능과 역할이 꼭 그 자리에서, 현재와 같은 위치에서, 평면의 대형전광판이라는 시설을 통해서만 가능한지 의문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도청 본관만 지상에 남기고 나머지 시설과 공간은 모두 지하로 설계했다. 이후에도 오랜 시간과 수많은 갈등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이제라도 그 취지에 맞게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철제 구조물과 전광판에 가려지지 않은 옛 전남도청 본래의 모습이 아시아문화전당의 상징이고, 그 바탕에서 다양한 창제작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시민의 문화권 확대와 문화민주주의 실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 창립된 협의체 단체입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22년 2차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22. 10. 26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22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